

## 17세기 초 화훼 취미에 관한 일고찰

- 이정귀 · 허균 · 이수광을 중심으로 -

안나미\*

<차 례>

1. 시작하며
2. 17세기 초 문인들의 화훼 취미 변화
  - 1) 연행을 통한 화훼에 대한 직접 경험
  - 2) 명대(明代) 화보(花譜)의 수용
3. 17세기 초 변화된 화훼 취미의 의미
4. 마치며

### <국문초록>

문인들의 화훼에 대한 애호(愛好)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문인들의 화훼 애호는 선비 정신을 상징으로 하는 사군자와 파초, 연꽃 등에 한정되었다. 특히 성리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 문인들은 화훼를 곁에 두고 가꾸는 일을 인격 수양과 덕성함양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화훼를 가꾸고 미적 대상으로 감상하는 화훼 취미가 유행하고 화보(花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17세기 초에도 화훼를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과 명(明)의 외교활동이 활발해지고 외교 일선에 있었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화훼 취미가 시작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정귀(李廷龜), 허균(許筠), 이수광(李睟光) 등이 연행길에 명에서 화훼를 얻어와 조선에서 키우기도 하고, 명대에 유행했던 유서(類書)와 총서(總書)를 통해 화보를 보면서 명 문인들의 화훼 취미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극히 일부 문인에 한정되긴 했으나 당시 문인들이 화훼를 바라보고 기록하는 것과 다른

\* 성균관대학교 강사.

현상이다.

조선후기 화훼 취미의 융성은 조선후기 실학의 영향과 함께 명청(明清)의 다양한 유서(類書)와 총서(叢書)의 유입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 이전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명 외교를 통한 직접 체험과 많은 서적 유입으로 몇몇 문인들에 의해 화훼 취미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17세기 중후반에 이어지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유행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초 화훼 취미가 비록 몇몇 문인에 한정되어 있긴 하나, 이 소수의 문인은 당시 조선의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조선과 명이 교류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식 정보가 전달된 현상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다. 18세기 화훼 취미가 100년 이전의 명대 유행이 조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17세기 초 화훼 취미는 조선과 명 두 나라의 실시간 문화 교류의 일면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17세기, 화훼, 명대(明代) 화보(花譜), 이정귀, 허균, 이수광

## 1. 시작하며

문인들의 화훼에 대한 애호(愛好)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문인들이 애호하는 화훼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비롯하여 연꽃, 파초 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사군자(四君子)라고 일컬어지며 단순한 화훼가 아니라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 문인들의 글에 수없이 등장한다. 특히 성리학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 문인들은 화훼를 곁에 두고 가꾸는 일을 인격수양과 덕성함양의 수단으로 삼았다.

삭풍이 공중을 뒤흔드는 세모의 하늘

朔吹搖空歲暮天

담요 덮고 독서하는 낡은 집 오솔오솔	廳廳老屋讀書甍
뼈에 스미는 추위를 무슨 수로 녹일 수 있나	一寒到骨那能解
만사가 마음에 걸려 그저 혼자서 애태울 뿐	萬事關心只自煎
이불이 섯덩이 같은 밤은 깊어 쌓인 눈만 환한데	衾鐵夜深明積雪
나무하는 산이 저자와 가깝건만 취연도 끊겼구나	樵山市近絕炊煙
시인이 추위 참는 것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	詩人耐冷今猶古
아무래도 매화 보러 시냇물 가로 가야 할까 봐	擬訪梅花澗水邊 <sup>1)</sup>

이 시를 보면 이곡(李穀)은 추운 겨울에 떨나무 피는 시장이 가까워도 떨감을 살 돈이 없어서 온기 없는 냉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곡은 ‘시인이 추위 참는 것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 / 아무래도 매화 보러 시냇물 가로 가야 할까봐’라고 시를 마쳤다. 추운 겨울 떨감 없이 견디는 선비의 모습을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로 표현한 것이다. 매화뿐만 아니라 난초, 국화, 파초, 연꽃 등이 선비의 정신의 상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문인들은 화훼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즐기고 가꾸는 대상으로 대하기 보다는 그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화훼를 이러한 상징에서 벗어나 미적 대상으로 감상하는 태도는 경계되는 등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화훼를 가꾸고 미적 대상으로 감상하는 화훼 취미가 유행하고 화보(花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본격적인 화훼 취미는 18세기 이후에 크게 유행했지만<sup>2)</sup> 17

- 1)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권 18, 『율시(律詩)』, <고한(苦寒)>, 한국고전번역원
- 2) 관련 연구로 정민, 「문인지식인층의 원예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집, 2005, 35~77쪽.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권, 동방한학회, 2013, 73~95쪽. 안대회, 「한국 蟲魚草木花卉詩의 전개와 특징」, 『한국문학연구』 제2호, 고려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147~173쪽 참조.

세기 초에도 화훼를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이 미미하게나마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과 명(明)의 외교활동이 활발해지고 외교 일선에 있었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화훼 취미가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정귀(李廷龜), 허균(許筠), 이수광(李睟光) 등이다. 이들은 당시 대명 외교 일선에서 중요하게 활약하면서 명의 새로운 문화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연행길에 명에서 화훼를 얻어와 조선에서 키우기도 하고, 명대에 유행했던 유서(類書)와 총서(總書)를 통해 화보를 접하면서 명 문인들의 화훼 취미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극히 일부 문인에 한정되긴 했으나 당시 문인들이 화훼를 바라보고 기록하는 것과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초에 나타난 화훼 취미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경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17세기 초 문인들의 화훼 취미 변화

17세기 초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대내외적으로 무척 혼란한 시기였다. 농지가 파괴되어 농사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백성들은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 화훼를 감상하고 취미로 키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명에 자주 연행을 하거나 명의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일부 문인들 중에는 화훼를 바

3) 『선조실록』, 선조 27년 3월 20일 무술(戊戌) “최흥원(崔興源)이 아뢰기를, ‘굶주린 백성들이 요즘 들어 더욱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시체의 살점을 모두 베어 먹어버리므로 단지 백골(白骨)만 남아 성(城)밖에 쌓인 것이 성과 높이가 같습니다.’ 하였다.”

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달라진 경우가 있었다.

화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행을 통해 명에서 유행했던 화훼 취미를 직접 접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는 왕성한 서책 왕래로 인해 새로운 화훼 취미 양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 1) 연행을 통한 화훼에 대한 직접 경험

문인들이 애호하는 꽃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국화(菊花)를 꼽을 수 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은 국화를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 부르며 국화가 지닌 상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글의 중요한 소재로 다루었다. 그래서 국화는 문인들의 글에 많이 등장하지만 대개는 선비의 기상을 상징하는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초반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 시기에 연행했던 몇몇 문인들에게서는 화훼에 대한 시각이 차별화되기 시작하면서 국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룬 시가 쓰여지기도 했다.

沙河의 劉國棟 집에 국화가 몇 종류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좋아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었다. 이에 그 뿌리를 달라고 해서 얻어 흙으로 싸서 가지고 가면서 그 사실을 적는 한편 국화의 이름을 기록하여 훗날 보고 잊지 않을 자료로 삼았다.

저물녘 칠령 아래에 투숙하여  
유생의 집으로 숙소를 잡았노라  
이웃 노인 역시 성이 유씨인데  
나를 맞이하여 국화를 감상했네

暮投七嶺下  
館于劉生家  
隣翁亦姓劉  
邀我賞菊花

그윽한 헌함에 걸상 깨끗이 털고  
 마주 앉아서 향긋한 차 마셨나니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 이미 저물어  
 서리 맞은 국화가 많이도 피었어라  
 짙은 황색에다 보드라운 백색으로  
 곱디고운 꽃잎들이 서로 기우똥  
 우리나라에선 보지 못한 것이요  
 중국에서 또한 많지 않은 품종이지  
 그중 하나는 이름이 **은작약**이고  
 그중 하나는 이름이 **침설라**인데  
 빛깔이 모두 눈보다도 더 하얗고  
 환하기는 마치 흰 깃을 자른 듯  
 그중 하나는 이름이 **금기린**인데  
 황금빛 꽃잎이 또렷또렷 분명하고  
 그중 하나는 이름이 **장원홍**인데  
 밝게 빛나 자색 안개 피어나는 듯  
 게다가 또 **미인홍**이란 게 있는데  
 마치 술 취한 미인의 얼굴과 같지  
**금뉴**라는 품종과 **은대**라는 품종도  
 그 자품이 모두 보통 것과 다르니  
 아무리 보아도 전혀 싫증이 안 나  
 해가 기울 때까지 마주하고 있었네  
 내가 바라길 이 품종들을 옮기어  
 아무리 길 멀어도 가지고 가겠다니  
 그 노인이 국화들을 파서 주면서  
 흙으로 뿌리와 싹을 꼭꼭 묻더라  
 게다가 띠풀로 싸고 또 담요로 싸  
 두 손으로 지성스레 어루만지었지

幽軒拂淨甕  
 對坐獻香茶  
 是時秋已暮  
 霜蘂紛芳華  
 濃黃與嫩白  
 粲粲相欹斜  
 吾邦未曾見  
 中土亦無多  
 一名銀芍藥  
 一名疊雪羅  
 色皆白勝雪  
 皎如剪霜紗  
 一曰錦麒麟  
 的的黄金葩  
 一曰壯元紅  
 焯灼蒸紫霞  
 又有美人紅  
 恍若嬌顏酡  
 金鈕與銀臺  
 姿品皆殊科  
 相看殊不厭  
 對之至日斜  
 我願移此種  
 不計道途遐  
 翁能斷以贈  
 帶土連根芽  
 包茅又氈裹  
 兩手勤摩挲

길 멀어서 가져가기 어렵다 말라	莫云遠難致
그저 나귀 한 필 있으면 그만인데	只可一驢馱
뿌리 내릴 제자리 다행히 얻었으니	結根幸得所
저 꽃도 응당 어긋남 없이 피리라	芳心應不差
아무쪼록 회수(淮水)를 건넌 꼴처럼	莫如渡淮橋
변화하여 다른 것이 되지는 말라	變化而爲他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여	題詩記茲事
이것으로 후세 사람에게 자랑하노라	持作後人誇 <sup>4)</sup>

이 시는 이정귀가 갑진년1604(선조37)에 세자 책봉 주청의 일로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지은 것으로 연행길에 사하(沙河)에 이르러 유국동(劉國棟)이라는 명나라 사람의 집에 핀 국화를 보고 그 다양한 종류에 경탄하며 쓴 시이다. 여기에서 이정귀가 언급하는 국화의 이름은 은작약(銀芍藥), 첩설라(疊雪羅), 금기린(錦麒麟), 장원홍(壯元紅), 미인홍(美人紅), 금鈕(金鈕), 은대(銀臺)이다. 이는 이정귀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요, 중국에서 또한 많지 않은 품종이지’라고 할 정도로 매우 귀한 국화의 품종이다.

위의 시에서 열거한 국화 품종은 당시 조선 문인 중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는 귀한 품종이다. 그 중에서 ‘장원홍’은 조선 후기 김정희의 시 <추일만흥(秋日晚興)>의 세 번째 수에 등장할 뿐이다.<sup>5)</sup> 은작약<sup>6)</sup>,

4) 이정귀(李廷龜), 『월사집(月沙集)』, 『갑진조천록하(甲辰朝天錄下)』, <沙河劉國棟家, 菊花數種, 奇絕異常, 皆我國所未有, 求得其根, 帶土裹去, 遂書其事, 且記菊名, 以爲後日不忘之資.>, 한국고전번역원.

5) 김정희(金正喜), 『완당전집(阮堂全集)』 권10, 한국고전번역원. “석류 뒤 국화 앞에 구경거리 잇따르니 장원홍 저게 바로 풍류를 아울렀네 榴後菊前容續玩 壯元紅是竝風流”

6) 왕호(汪灝), 『광군방보』 권 48, 『花譜』, “○菊花一, 銀芍藥, 一名芙蓉菊, 一名樓子菊, 一名瓊芍藥, 一名太液蓮, 一名銀牡丹, 一名銀骨朶. 初似金芍藥, 後瑩白, 香

첩섭라<sup>7)</sup> 금기린<sup>8)</sup> 은대<sup>9)</sup>는 중국의 유명한 화보인 『광군방보(廣羣芳譜)』<sup>10)</sup>에 국화의 품종으로 그 이름이 등장한다. 『광군방보』는 방대한 화보로 『만물유취(萬物類聚)』,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심암유고(心菴遺稿)』,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임하필기(林下筆記)』 등에 그 서명이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명만 인용되어 있을 뿐 이 국화의 품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8세기 화훼 취미의 유행 현상을 생각해 보면 청대의 유명 화보가 조선 문인들에게 읽혔던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17세기초 이정귀는 이런 귀한 품종의 국화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정귀와 함께 여행했던 부사 민인백(閔仁伯)도 여행의 상황을 기록한 『조천록(朝天錄)』이 있으며, 서장관 이준(李峻)도 『창석집(蒼石集)』에 여행 도중 읊은 시가 20여수 남아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국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정귀는 국화를 보면서 ‘그중 하나는 이름이 금기린인데 황금빛 꽃잎

甚，殘色淡紅，葉亞深，與金芍藥同。”

- 7) 왕호(汪灝), 위의 책, “○菊花一，白疊羅，一名新羅菊，一名疊雪羅，一名玉梅，一名白疊雪，一名倭菊。蓓蕾難開，中暈青而微黃，開徹瑩白如雪，徑可三寸，厚三之二，其瓣羅紋，其殘粉紅，葉青而稠，大而仰，其末團，其亞深，枝幹勁挺，高僅三、四尺。”
- 8) 왕호(汪灝), 위의 책, “○菊花一，一名治蕊，一名日精，(중략)錦麒麟，一名回回菊。其花極耐霜露，徑可二寸，萼黃，瓣初赤紅，既開則面金黃而…”
- 9) 왕호(汪灝), 위의 책, “○菊花一，一名治蕊，一名日精 (중략) 枇杷菊，葉似枇杷，花似金盞銀臺而極大，■■不甚香。舒州有蜂兒菊，鵝黃色…”
- 10) 『광군방보』는 청(淸)대에 왕호(汪灝)가 편찬한 100권짜리 책으로 편찬년대는 미상이나 서문은 강희(康熙) 47년(1708) 5월에 쓰여졌다.

이 또렷또렷 분명하고, ‘그중 하나는 이름이 장원홍인데 밝게 빛나 자색 안개 피어나는 듯’이라고 하면 각각의 국화 이름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름이 첩설라인데 빛깔이 모두 눈보다도 더 하얗고 환하기는 마치 흰 깃을 자른 듯’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광군방보』의 첩설라 설명에서 ‘一名疊雪羅, 一名玉梅, 一名白疊雪, 一名倭菊. 蓓蕾難開, 中暈青而微黃, 開徹瑩白如雪, 徑可三寸, 厚三之二, 其瓣羅紋’과 비교해 보면 밑줄 친 부분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정귀가 당시 명대 화보를 보고<sup>11)</sup>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국화를 보자마자 그 형태와 색깔로 품종을 구별할 뿐 아니라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국화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흔치 않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품종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정귀는 당시 국화에 대해 상당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정귀가 국화를 특별히 좋아하여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며 국화에 대한 빠른 정보 수집은 당시 명 문화를 쉽고 빠르게 접촉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화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징적 의미를 나열하는 대신 해가 기울 때까지 감상에 몰입하고 감상을 넘어 그 뿌리를 얻어와 키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여행길은 길고 험해서 명에서 가져온 화훼를 조선까지 무사히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명의 토양과 기후가 조선과 달라 명의 화훼를 조선에서 키우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화훼를 재배하는 전문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도 이정귀는 기울

11) 『광군방보』가 청대에 편찬된 책이지만, 화보에 실린 꽃에 대한 정보는 명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대 화보의 내용을 통해 명대 화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정귀는 명의 화훼를 조선까지 가지고 와서 재배한 경험이 있거나 화훼 재배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정귀의 집은 연화방에 있다. 사당 앞에 단엽홍매(單葉紅梅)가 있는데, 곧 중국인이 공에게 선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홍매화가 단엽인 것은 이 한 그루뿐이다.<sup>12)</sup>

이 글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다. 이정귀가 명 문인 옹화(熊化)에게서 선물로 받은 단엽홍매는 국내 유일 품종으로 이정귀의 호를 따서 ‘월사매(月沙梅)’라고 불리었다.<sup>13)</sup> 이 매화는 월사가 연행 때 북경 곤명원에서 나눠 가져왔던 매화로 어사 옹화와 내기 바둑을 두어 얻어 와서 조선에 두루 퍼졌다고 한다.<sup>14)</sup> 이 월사매는 명의 만력(萬曆)황제가 감상하던 귀한 매화로 월사매, 만력매(萬曆梅), 대명매(大明梅), 대명홍(大明紅)으로 불리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명의리의 상징이 되었을 정도이다.

조선 후기 문인 신석우(申錫愚), 박규수(朴珪壽)<sup>15)</sup> 등이 키웠으며, 박

1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漢城府), 한국고전번역원.

13) 이윤희(李裕元), 『국역임하필기(林下筆記)』 제32권, 『순일편(旬一編)』, <월사매(月沙梅)>, 한국고전번역원. “월사(月沙) 이공(李公 이정귀(李廷龜))이 중국에서 단엽홍매(單葉紅梅)를 가지고 와 사당 앞에 심었다. 이 종자가 나라 안에 두루 퍼져서, 사당의 나무가 이미 말라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단엽홍매를 보면 ‘월사매’라 하였다.”

14) 한장석(韓章錫), 『미산집(眉山集)』 권 9, 『제발(題跋)』, <이원필만력매첩발(李元泌萬曆梅帖跋)>. “萬曆間月沙李公朝京, 與熊御史賭碁得此東還, 蓋顯皇帝之所容賞, 而御史以廣詩受賜者也. 子孫封殖, 十世無恙, 士大夫歌詠而傳道之, 以爲王春一脉, 托在李氏家, 旣李氏流散鄉谷, 而梅亦無聞焉.”

15) 김명호, 『박규수의 학문관』, 『진단학보』 제 88호, 진단학회, 1999. 472쪽 참조. “환재

규수의 벗 조면호(趙冕鎬)와 이견창<sup>16)</sup>, 신위(申緯)도 대명매를 언급할 정도로 조선 후기 많은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현재 월사매는 월사가와 창덕궁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를 보면, 이정귀는 명에서 화훼를 들여와 조선에서 재배하는 경험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화훼 재배 지식이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정귀처럼 연행했던 문인들이 명에서 화훼를 얻어오는 일은 적지 않았다. 유몽인, 고부천(高傅川) 등도 명에서 난초와 매화를 얻어온 일이 있다. 유몽인은 연행을 갔다가 명 문인이 난초를 선물로 주자 가는 길에 난초를 죽이게 될 것이라며 극구 사양을 하고, 고부천은 1620(광해군12)년에 서장관으로 명에 연행을 갔다가 희종(熹宗)황제에게서 흥매화를 하사받아 키웠다고 한다.<sup>17)</sup> 고부천이 명에서 들여온 매화는 현재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연행을 했던 일부 문인들은 명에서 화훼를 얻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조선 문인들이 화훼에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명에서 조선 사신들에게 화훼를 선물로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명에서 화훼를 재배하던 취미가 유행했던 현상과 관계 있다고 하겠다.

---

박규수는 거처하는 곳마다 대명홍을 많이 심었는데, 그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명홍’은 곧 월사 이정귀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구해다 심었다는 ‘대명매(大明梅)’로, 박규수는 월사의 후손가인 처가에서 이 매화를 얻어다 심었던 듯하다.”

16) 민영규, 『강화화 최후의 광경』, 우반, 1994. 369쪽 참조 “특히 영재 이견창은 월사매(月沙梅)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성균관 반촌, 김아무개로부터 접붙인 묘목을 구해서 서강 내 집으로 옮겨 심었다고 밝히고 있다.”

17) 고부천, 『월봉집(月峰集)』, 권 9, 『연보(年譜)』. “熹宗皇帝天啓元年辛酉 公四十四歲. 泰昌皇帝梓宮在殯, 周旋處變, 少無違禮皇上獎其禮制應變之甚詳, 賜酒饌及銀畫盃一雙紅梅一盆顧氏畫譜四卷, 蓋稀賞也.”

## 2) 명대(明代) 화보(花譜)의 수용

당시는 이정귀처럼 화회를 직접 들여와 키우지는 않더라도 화회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달랐다. 허균은 『한정록(閒情錄)』에 명의 문인 원굉도(袁宏道)의 <병화사(瓶花史)>를 그대로 옮겨 실었다. 원굉도는 꽃을 좋아하여 꽃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소유했던 인물이다. 그는 <병화사>에 꽃 기르는 법, 꽃의 종류, 화병에 꽃 꽂는 법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허균은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화병에 꽃을 꽂을 때에는 그 양(量)이 너무 번다해도, 너무 빈약해도 안된다. 아무리 번다하다 해도 2~3종에 지나지 않도록 하여 그 고저(高低)와 밀도(密度)도 마치 화단(畫壇)의 진열과 같아야만 묘(妙)하다. 화병을 배치할 때에는 상대(相對)로, 한 줄로, 줄줄로, 또는 노끈으로 묶어 놓는 것을 꺼린다. 대저 꽃의 배치가 정제(整齊)하다는 것은,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의태(意態)가 마치 자침(子瞻 소식(蘇軾)의 자)의 문장처럼 마음대로 단속(斷續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것)되고 청련(靑蓮 이백(李白)의 별호)의 시구처럼 대우(對偶)에 구애되지 않은 것을 말하니, 이것이 진짜 정제이다. 만약 지엽(枝葉)이 서로 맞닿고 홍백(紅白)이 서로 일정하면 이는 궁성(宮省)의 층계 아래에 묘문(墓門)의 망주석(望柱石)을 세운 셈이니, 어찌 정제한 배치라 하겠는가.<sup>18)</sup>

이 글은 원굉도의 <병화사>에서 화병에 꽃 꽂는 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꽃을 꽂는 양과 꽃의 종류, 화병의 배치, 색깔의 대비 등을 자세히 나타내었다. 허균이 인용한 <병화사>에는 1. 화목(花目), 2. 품제(品第), 3. 기구(器具), 4. 택수(擇水), 5. 의칭(宜稱), 6. 병속(屏俗), 7. 화수(花崇), 8. 세목(洗沐), 9. 사령(使令), 10. 호사(好事), 11. 청상(淸賞), 12. 감

18) 허균, 『국역성소부부고』, 『한정록』 17권, <병화사>, 한국고전번역원.

계(監戒), 13. 화안(花案)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꽃의 종류와 가꾸는 법에서부터 감상하는 법까지 화훼 취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당히 도움 되는 정보를 실은 셈이다. 허균의 글에서 화훼 취미를 찾아볼 수 있는 글은 별로 없지만, <병화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면 허균 자신이 화훼에 취미가 없더라도 화훼 취미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균도 17세기 초 대명 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명에 자주 연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파병되었던 명인들을 만나는 것에도 적극적이었으며 명의 서적을 대량 수입해 올 정도로 명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당시 명에는 대중문화가 유행하면서 지리지나 화보, 조보(鳥譜) 등이 많이 출판되었고 화보만 해도 국보(菊譜), 매보(梅譜), 죽보(竹譜), 난보(蘭譜) 등으로 꽃의 종류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었다.

명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허균은 이러한 당시 유행 현상을 간파했을 것이고, 허균이 눈여겨 보았던 원굉도의 저작에서 원굉도가 화훼에 취미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허균으로 하여금 화훼에 관심을 두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원굉도의 <병화사>를 『한정록』에 그대로 수록하여 조선에 소개되지 않았던 화훼 취미를 알리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인이 화훼를 재배하고 감상하는 취미를 갖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을 알고 소개하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이다.

이정귀, 허균과 함께 대명 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수광은 1614(광해군 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서(類書)인 『지봉유설(芝峯類說)』을 저술하였다. 『지봉유설』에는 화목부(卉木部)가 이 책의 총 25부 중 24번째 부에 편차되어 있으며 ‘화(花), 초(草), 죽(竹), 목(木)’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국화는 두 종류가 있다. 자주빛 줄기에 향기롭고 맛이 달며, 잎은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을 진국(眞菊)이라고 한다. 푸른 줄기에 키가 크고 쭉 냄새가 나고 맛이 써 먹을 수 없는 것은 약이라고 하니 진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보(菊譜)』에서 “신라국(新羅菊)은 옥매(玉梅)라고 한다. 9월 말에 천 개의 잎에 순백색의 꽃이 핀다”라고 했으니 지금의 백국(白菊)이 바로 이것이다.<sup>19)</sup>

이 인용문은 『지봉유설』에 실린 국화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국화를 두 종류로 나누고 그 명칭과 생태를 실었는데, 『본초강목』과 『국보』 두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신라국은 옥매라고도 하며 지금의 백국이 그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정귀가 말한 첩설라라는 국화 품종을 설명한 『광군방보』의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sup>20)</sup>

『지봉유설』에 실린 화훼는 매화, 모란, 장미, 연꽃, 국화, 동백, 치자, 영산홍, 백모란, 봉선화 등이다. 대부분이 중국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자라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직접 보고 기록한 것도 있다.

물론 『지봉유설』이 유서이기 때문에 매화, 모란, 연꽃, 국화 등이 문인들에게 문인의 기상과 고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다루어진 것에 반

19) 이수광, 『지봉유설』, 『해목부』, 을유문화사, 1998, 455쪽.

20) 왕호(汪灝), 위의 책, “○菊花一, 白疊羅, 一名新羅菊, 一名疊雪羅, 一名玉梅, 一名白疊雪, 一名倭菊. 蓓蕾難開, 中暈青而微黃, 開徹瑩白如雪, 徑可三寸, 厚三之二, 其瓣羅紋, 其殘粉紅, 葉青而稠, 大而仰, 其末團, 其亞深, 枝幹勁挺, 高僅三、四尺.”

해 이수광은 꽃 그 자체의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종류와 재배법, 유래 등을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과 중국의 전문 서적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수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수광이 매화를 설명할 때 『매보(梅譜)』를 인용하였는데, 이 책은 중국 남송(南宋) 범성대(范成大)가 저술한 것으로 일명 『범촌매보(范村梅譜)』라고 불린다. 이수광이 『지봉유설』에 『매보』의 인용이라고 밝히며 강매(江梅), 조매(早梅), 고매(古梅), 행매(杏梅)를 기록하였는데, 『범촌매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에 행매의 내용은 『범촌매보』에는 없는 것으로 아마도 다양한 종류의 『매보』를 보고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범성대만 하더라도 이미 다양한 종류의 『매보』를 저술했으며 송대에 출판된 『매보』가 명대에 다시 재출판되면서 수정보완되었을 것이다. 이수광이 직접 인용한 중국 문헌은 『매보(梅譜)』, 『국보(菊譜)』와 『본초강목』 등의 전문 서적이며 『한서(漢書)』나 당시(唐詩) 등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직접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수광이 참고한 중국의 서적은 이외에도 많아 보인다. 명말에 화보의 유행으로 많은 종류의 전문 화훼 서적이 출판되었으며, 이수광은 여러 종류의 화보를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그 내용을 수합하고 정리하였을 것이다.

17세기 초 명대에 대대적으로 유행한 유서와 총서가 조선에 유입되었고 이 중에 화보가 있어 화훼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화보의 종류도 국보(菊譜), 매보(梅譜), 죽보(竹譜) 등으로 더 세분화되어 화훼 종류와 재배 방법, 서식처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었다.

『지봉유설』에 인용된 서목을 참고해 보면, 화훼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적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훼부에 직접 인용한 것 외에도 전체 인용서목을 살펴보면 화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많다.

예를 들어 『고금주(古今注)』는 고대와 당시 각종 사물의 해설서로 여복(輿服), 도읍(都邑), 악(樂), 조수(鳥獸), 어충(魚蟲), 초목(草木), 잡주(雜注), 문답석의(問答釋義)로 구성된 책이다. 이 중에 초목이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해지(桂海志)』<sup>21)</sup>에도 지화(志花), 지과(志果), 지초목(志草木)의 항목이 있다. 『계해지』는 『본초강목』에 들어 있는데, 이수광은 두 서적의 이름을 따로 인용하였다.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에도 화(花)와 죽(竹)이 30조(條)로 편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고금명유(古今名喻)』, 『분류전편(分類全編)』, 『운부군옥(韻府群玉)』 등의 유서에도 화훼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있어 『매보』나 『본초강목』처럼 직접 화훼를 다룬 서적 말고도 폭넓고 다양하게 화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서적에서 화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이수광은 조선에서 화훼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화훼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수광이 유서를 제작할 때만 해당할 뿐 다른 저술에서는 이정거처럼 개인적으로 화훼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허균과 이수광을 통해 명대 화보가 17세기 초 조선 문인들에게 읽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문인들이 명대 화보를 읽었다고 해서 바로 화훼를 재배하고 감상하는 취미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화훼에 대한 시각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현상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21) 『계해지(桂海志)』의 원래 명칭은 『계해우형지(桂海虞衡志)』이다. 『志岩洞』, 『志金石』, 『志香』, 『志酒』, 『志器』, 『志禽』, 『志獸』, 『志蟲魚』, 『志花』, 『志果』, 『志草木』, 『雜誌』, 『志蠻』으로 모두 13편(篇)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17세기 초 변화된 화훼 취미의 의미

화훼에 대한 조선 문인의 태도가 완물상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화훼가 가지는 성리학적 상징에 집중하였다고는 하지만, 화초를 재배하고 감상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장원서(掌苑署)가 분재(盆栽)한 국화를 올리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상전(上殿) 외에는 잡화(雜花)를 올리지 말라는 것을 이미 분부했는데, 어찌하여 이 꽃을 올리느냐?”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승전(承傳)을 고찰하건대, 지난 무진년 11월에 전교하시기를, ‘이 뒤로는 만약 그 철의 꽃이 아니거든 상전(上殿) 외에는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셨는데, 그 때의 전지(傳旨)가 이와 같으므로, 장원서가 필시 국화는 철꽃이라 여겨 진상한 것인가 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철꽃이더라도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sup>22)</sup>

조선 왕실에서는 대궐 안에 있는 정원의 꽃과 과일 나무 따위를 관리하는 장원서(掌苑署)가 있었다. 인용문은 조선 중종 4년의 기록으로 중종이 꽃을 진상하지 말라고 명한 내용이다. 조선 성종 때 겨울에 장원서에서 영산홍 화분을 올리자 겨울에 봄꽃을 올리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라 장원서에서는 가

22) 『중종실록』, 4년 윤9월 10일. “掌苑署進盆菊, 傳曰: “前日上殿外, 勿進雜花事, 已教之, 何以進此花耶?” 政院啓曰: “考承傳, 去戊辰年十一月. 傳曰: ‘今後若非節花, 上殿外, 勿令進上.’ 其時傳旨如此, 故掌苑署, 必以菊爲節花而進之也.” 傳曰: “雖節花, 竝勿進之可也.””

을에 국화를 올렸으나 중중은 철꽃이라도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왕실에서 화초를 애호하는 일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위가 되거나 완물상지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장원서가 겨울에 봄꽃을 피워내고 철마다 꽃을 진상할 수 있을 정도의 화훼 재배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화훼서는 15세기에 박흥생(朴興生)의 『촬요신서(撮要新書)』, 전순의(全循義)의 『산가요록(山家要錄)』, 강희안(姜希顔)의 『양화소록(養花小錄)』, 강희맹(姜希孟)의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가 있다. 『촬요신서(撮要新書)』에는 13종의 초목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산가요록』은 중국의 『농상집요(農桑輯要)』를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화훼류는 없고 경제 수종을 위주로 풀이한 것이다.<sup>23)</sup>

강희안의 『양화소록』 1474년 출간된 조선 최초의 화훼 및 원예전문서적으로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 원예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24)</sup> 이 책은 화훼의 재배법과 이용법, 그 품격과 의미, 상징성을 논하고 있다.

일찍 양화소록(養花小錄)을 지어서 은미한 뜻을 붙였다. 그 책은 널리 옛 방법을 뽑고 보고 들은 것을 참고로 하여 건조하며 비습한 도를 구별하고 심고 가꾸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니, 은연히 천지의 조화를 마련하며 도우려는 뜻을 가졌다. 마음으로 지극한 도를 통달하며 정묘함이 자연의 신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 화초는 식물이다. 지식으로 서로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말로 서로 통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굽히며 펴고, 바로잡으며 휘며 펴나가 번영하게 하며 주저않혀 꺾어지게 하는 것을

23)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권, 동방한문학회, 2013, 81쪽 참조

24) 이호철, 「양화소록에 담긴 15세기 꽃·나무 사랑법」, 『농업사연구』 제3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4, 160쪽 참조

내 마음대로 하면, 물건이 이에 어기지 못하는 것은, 그의 본성을 따르며 그의 자연을 온전히 하는 것뿐이다. 만일 하늘이 그에게 연령을 늘려 주어 이 수단을 옮기어 한 세상을 교화시켰다면, 곧 그의 인자한 은혜와 유리한 혜택이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넓었을 것이다. 어찌 다만 꽃을 기르는 말단의 일을 빌어서 신비한 교화의 묘리를 연구함에 그쳤겠는가.<sup>25)</sup>

이 글은 강희맹(姜希孟)의 <양화소록 서(養花小錄序)>이다. 형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 동생 강희맹이 서문을 붙인 것이다.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화소록』은 전문적인 화훼 재배서임에도 불구하고 화훼에 담긴 성리학적 상징을 중시하고 있다.

이 책의 화목(花目)은 18종으로 노송(老松), 만년송(萬年松), 오반죽(烏斑竹), 국화(菊花), 매화(梅花), 난혜(蘭蕙), 서향화(瑞香花), 연화(蓮花), 석죽화(石榴花, 百葉附), 치자화(梔子花), 사계화(四季花, 月季附), 산다화(山茶花), 자미화(紫薇花), 척축화(躑躅花), 귤수(橘樹), 석창포(石菖蒲)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화분에서 꽃과 나무를 키우는 방법[種盆內花樹法], 꽃을 빨리 피게 하는 법[催花法], 모든 꽃이 싫어하는 것[百花忌宜], 꽃과 나무에서 배울 점[取花卉法], 꽃을 기르는 방법[養花法], 화분을 배열하는 법[排花盆法], 갈무리 하는 법[收藏法], 꽃을 키우는 이 유[養花解]가 수록되어 있다.<sup>26)</sup>

이렇게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항목이 있더라도 국화는 은일을 자랑하

25) 서거정(徐居正), 『속동문선(續東文選)』 권 15, 「서(序)」, <양화소록서(養花小錄序)>, “嘗著著川養花小錄, 以寓微意, 其爲書廣摭古方, 叅以見聞, 辨燥濕之宜, 論蒔種之法, 隱然有繚繚, 贊化之意, 非心通至道, 妙詣天機者不能也. 噫, 花卉植物也, 非有智識之相感, 言語之相宜也. 然其屈伸矯揉, 敷榮頓挫, 在我而物莫能違, 不過順其性而全其天耳, 向使天假之年, 移此手段, 陶一世, 則其仁恩利澤, 及人者廣矣. 豈但假養花之末事, 窮神化之妙用者哉.”

26) 이호철(2004), 위의 논문, 161쪽 참조.

고 매화 난초는 품격이 높다는 식으로 화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 하늘과 땅 사이에 수없이 많은 초목(草木)·금수(禽獸)·동물·식물의 유(類)로서 잘 길러야 성취되는 것이 그 열만 줄을 알리요. 진실로 잘 기르지 않으면 움직이는 놈은 죽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심은 놈이 넘어지고, 번영한 놈이 말라지고, 퍼지는 놈이 시들어, 맥없이 그 본성을 떠나니, 그것이 무엇이 이상할 것인가. 물건이 이미 그렇거니, 마음도 또한 잘 길러야 하는 것이다. 공명(功名)과 사업에 유인(誘引)되고, 우환(憂患)과 영욕(榮辱)에 시달리면 그 천성(天性)을 보전하는 것이 적은 법이다. 그런데 파초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물건이라, 너무 건조하면 말라지고 너무 습하면 문들어지며, 법을 얻으면 번영하기 쉽고 법을 잃으면 말라지기 쉽니, 잘 기르는 묘방(妙方)은 스스로 터득함에 있는 것이다<sup>27)</sup>

인용문은 강희맹에게 백옥(伯玉) 이석형(李石亨)이 그 맏아들 혼(渾)을 보내어 파초를 심고 기르는 법을 묻자<sup>28)</sup> 강희맹이 <양초부(養焦賦)>를 지어주면서 쓴 서문이다. 파초 재배법을 알려주면서도 성리학적 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15세기에도 화훼를 재배하고 감상하였지만 그 태도는 화훼를 취미로 대할 수 없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이르러 연행이 잦아지면서 연행했던 문인들은 명에서 화훼를 얻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명에서 유행하는 서적을 수입하면서 많은 화보류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에서 화초를 얻어왔다고 해서 화훼 취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 문물을 자주 접

27) 『동문선』 권 130, 『속동문선』 권 1, <양초부(養焦賦)>, 한국고전번역원.

28) 이석형의 현손(玄孫)이 이정귀이다. 이정귀의 집안이 화훼 재배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축하였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화훼 취미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 이정귀만 하더라도 많은 시와 글에서 당시의 화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품평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정귀는 중국에서조차 귀한 국화의 품종을 보고 후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시를 썼고, 화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국화들을 조선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재배하였는지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월사매를 들여온 일조차 본인의 문집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화훼를 식물을 기르는 취미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유독 눈에 띄는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허균과 이수광은 화훼를 재배하고 감상하는 취미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명에서 유입된 전문 서적을 통해 화훼 취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정보를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고 본인의 화훼 취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17세기 초 문인들에게 있어 화훼 취미는 드러내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다. 화훼를 곁에 두고 가꾸고 감상하는 일은 인격수양과 덕성함양의 수단이 되어야지 기호가 되는 것을 경계했던 당시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이정귀, 허균, 이수광 등은 당시 대명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며 서너 차례 연행길에 올랐다. 많은 명의 문인들을 만나면서 당시 명의 유행 현상을 빨리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명에서 유행하던 유서 총서류와 지리지<sup>29)</sup> 등에 포함된 각종 화보를 읽은 이 시기 문인들은 직접 화훼를 재배하고 감상하는 취미를 갖지 않더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의식의 전환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29) 17세기 초에 조선에 유입된 명나라 하당(何鏜)의 『명산승개기(名山勝槩記)』를 보면 지리지 뒤에 여러 편의 화보가 실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허목의 『기언(記言)』에 실린 『석록초목지(石鹿草木誌)』를 살펴 보자.

국화.

『본초강목』에 “음기를 기르고 화기(火氣)를 없앤다. 오래 복용하면 머리가 검어지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하였다. 국화는 사람의 성정을 수양하는데 있어 으뜸가는 약이다. 사정지(史正志)의 『국보(菊譜)』에 “꽃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꽃잎이 무성한 것은 대부분 떨어진다.” 하였고, 『어아(爾雅)』에 “국화는 일명 치장(治藏)이라 한다.” 하였다. 혹은 일정(日精), 주영(周盈)이라고도 한다. 『본초강목』에서는 절화(節花), 갱생(更生), 음성(陰成)이라고 하였다.<sup>30)</sup>

이 글은 『석록초목지』에 실린 국화에 대한 부분으로, 국화의 효능과 명칭,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화뿐만 아니라 운은행(雲銀杏), 석창포(石菖蒲), 파초 등 다양한 화훼에 대한 정보를 실고 있다. <십청원기(十靑園記)>에는 소나무, 낭태(狼苔), 복령(茯苓), 측백나무, 전나무, 해송(海松), 자죽, 박달나무, 등향(藤香), 두충(杜冲), 비자, 대나무, 권백, 맥문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를 통해 화훼의 재배 방법 등이 상세하고도 광범위하게 소개되면서 18세기로 들어가 화훼취미가 크게 유행하게 된다.

조선후기 화훼 취미의 융성은 조선후기 실학의 영향과 함께 명청(明清)의 다양한 유서 총서의 유입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 이전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명 외교를 통한 직접 체험과 많은 서적 유입으로 몇몇 문인들에 의해 화훼 취미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17세기 중후반에 이어져

30) 허목(許穆), 『기언(記言)』 권 14, 『전원거(田園居)』 1, <석록초목지(石鹿草木誌)>, 한국고전번역원.

18세기에 이르러 유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초 화훼 취미가 몇몇 문인에 한정되어 있긴 하나, 이 소수의 문인은 당시 조선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과 명의 교류에 앞장 섰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의 화훼 취미에 대한 관심은 양국의 지식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실시간 문화교류의 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4. 마치며

본고는 17세 초 임진왜란 시기에 대명 외교 일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약했던 이정귀, 허균, 이수광을 중심으로 당시 화훼 취미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 보았다. 17세기 이전 조선 문인들의 화훼에 대한 태도는 성리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화훼의 상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17세 초 명과 본격적인 문화 교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직접 명의 유행 현상을 접하고 명의 서적이 대량 유입되면서 화훼 취미에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났다. 이는 17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전문 화훼서의 본격적인 등장 및 18세기 화훼 취미의 변화에 내부적인 변화의 요인이 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7세기 초의 이 현상은 조선과 명 두 나라의 실시간 문화교류의 일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17세기 초 당시 문인들이 보았던 명의 화훼 서적의 종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언급된 서적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당시 명대 출간되어 유행했던 서적 중에 어떤 화훼 서적이 조선에 유입되고 열독되어 재해석 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정귀, 허균, 이수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이 시기 연행에 나섰던 다른 문인들의 기록을 두루 살펴 또 다른 화훼 취미의 변화를 찾아내어 17세기 초 화훼 취미의 변화 양상을 좀더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를 느낀다.

17세기 초 한중 문화교류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18세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큰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추후에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金正喜, 『阮堂全集』, 권10, 한국고전번역원.  
 서거정, 『국역 속동문선(續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  
 이수광, 『지봉유설(芝峯類說)』, 『해목부』, 을유문화사, 1998, 455~465쪽.  
 이유원, 『국역 임하필기(林下筆記)』, 한국고전번역원.  
 李廷龜, 『月沙集』, 한국고전번역원.  
 許 筠, 『惺所覆瓿藁』, 한국고전번역원.  
 許 穆, 『記言』, 한국고전번역원.
- 강민구, 「유서(類書)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화훼(花卉)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39~71쪽.  
 김명호, 「박규수의 학문관」, 『진단학보』 제88호, 진단학회, 1999, 459~479쪽.  
 김원준, 「지봉 매화시 고찰」, 『한민족어문학』 39, 한민족어문학회, 2006, 175~190쪽.  
 노지현·오현경·한상영, 「비해당사십팔영의 출현식물이 조선시대 원에 관련서에 미친 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권 2호,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09, 1~12쪽.  
 민영규, 『강화학 최후의 광경』, 우반, 1994, 1~369쪽.  
 신익철, 「조선시대 매화시의 전개와 특징」,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165~216쪽.  
 안대회, 「한국 蟲魚草木花卉詩의 전개와 특징」, 『한국문학연구』 제2호, 고려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147~173쪽.  
 이종묵, 「조선 선비의 꽃구경과 운치 있는 사회」, 『한국한시연구』 20, 한국한시학회, 2012, 299~335쪽.  
 \_\_\_\_\_, 「조선의 명품매화 정당매」, 『선비문화』 17, 남명학연구원, 2010, 88~96쪽.  
 이호철, 「양화소록에 담긴 15세기 꽃·나무 사랑법」, 『농업사연구』 3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04, 159~163쪽.  
 정 민, 「문인지식인층의 원예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집, 2005, 35~77쪽.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권, 동방한문학회, 2013, 73~95쪽.

ABSTRACT

Study on the floriculture in the early 17th century  
- Focusing on Lee jeong-gui, Huh Gyun, Lee soo-gwang -

Ahn, Na-mi

Writers' preference of floriculture has a long history, but it was limited to the Four Gracious Plants, plantain, and lotus, all of which symbolize classical scholars' spirits. In particular, writers based on neo-Confucianism regarded raising flowers as means of cultivating their personality and moral character.

After the late Chosun dynasty, the flower hobby that raises flowers and appreciates them esthetic objects was in vogue, and then enhanced interest in flower books. However, a new perspective to differentiate the previous viewpoint of flower emerged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In particular, after the Imjin War, diplomatic activities between the Chosun and Ming dynasties were activated, and writers who were in the front line of diplomacy had a leading role in the floriculture. Writers such as Lee jeong-gui(李廷龜), Huh Gyun(許筠), Lee soo-gwang(李睟光) got flowers from Ming, and raised them in Chosun. They were interested in the floriculture while seeing flower books through reference books and a series of books which were in vogue in the era of Ming. These phenomena were limited to only a few writers, but different from the fact that contemporary writers observed and recorded flowers.

The imports of varieties of Ming and Ching dynasties' reference books and a series of books as well as influences of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played a major role in the prosperity of the floriculture the late Chosun dynasty. Before these factors, direct experiences and inflows of many books through diplomacy with the Ming dynasty after the Imjin War helped several writers start the floriculture. This trend continued to the mid and late seventeenth century, and eventually was in vogue in the

eighteenth century.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e floriculture was so limited to several writers that it is not considered a major trend. It was meaningful as a phenomenon that led to communication between the Chosun and Ming dynasties and then transferred knowledge in real time. If the eighteenth century's floriculture implies that the Ming dynasty's fashion one hundred years ago affected the Chosun dynasty,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s floriculture has a meaning that it was a real time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the Chosun and Ming dynasties.

**Key Words** floriculture, the seventeenth century, the Ming dynasty's flower book, Lee jeong-gui, Huh Gyun, Lee soo-gwang

논문투고일 : 2015. 5. 1

심사완료일 : 2015. 6. 2

게재확정일 : 2015. 6. 4

